

이용섭 '전두환 부역' 논란 점차 확산

'전두환 회고록' 주도 변호사 고발에 동료들 "정치공세" 바른미래당 "문제는 '가짜 사진'이 아닌 '근무한 사실'"

李 "전 정권 근무 사실이지만 정책 만드는 일...억울해"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근무 경력을 둘러싼 '부역 논란'이 법조계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정계에 따르면 이용섭 예비후보의 적극 지지자로 알려진 A씨가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변호사 김(모45) 씨를 고발했다.

'일베저장소'에서 떠돌던 '전두환과 사공일 당시 수석 추경인물이 악수하는 사진'을 퍼올려 이 후보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 44인 단체 카톡방에 올린 혐의다. 또 '전두환 부역 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단체 카톡방은 10년 가까이 운영돼 왔고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김 변호사 모두 이 카톡방에서 사적 대화 등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지난해 4월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자 5·18단체를 대신해 1년 동안 출판 및 배포금지 가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끌어오고 있다.



윤광장 5·18기념재단 전 이사장이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의 전두환 정권 청와대 행정관 근무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단복방에 관련 사진과 함께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뒤 그 피가 채 마르지 않은 1985년, 서슬퍼런 시절에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6개월이나 근무한 분이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연관장을 돌리며 구명에 나섰다. 현재까지 10명 가까운 현지 변호사들이 정치 공세 중단과 고발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주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시장 선거에서 후보가 5·18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5·18과 관련된 그간의 행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광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며 "모름지기 시장 후보라면 전두환의 역사 왜곡 저지에 함께해야 할 것인데 이용섭 캠프는 저항해야 할 상대로 전두환이 아닌 영웅한 사람을 택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SNS를 통해 배포됐고 이 후보 측이 '가짜'라고 주장한 사진의 진위와 선거법 위반 등 사실관계와 처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본질은 사진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광주시장 후보의 사실에 입각한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이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정비서관실은 서슬퍼런던 '군사 독재의 칼'이라 불리던 곳이어서 더욱더 광주시민은 이 후보의 근무행적을 낱말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사진의 진위 여부 논란에 집중해 가지니, 문제 없다면 하니 하는 주장은 시장 후보 검증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이고, 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입을 닫게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공직 관계상 청와대에 파견돼 전두환 정권 청와대에서 1년6개월 간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자 청렴, 부패 방지, 공직 윤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전두환 부역자고, 전두환 비서였다면 민주 정부 세 명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안철수 "김문수와 단일화 없다"

"드루킹 여론조작은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9일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는 없다. 마지막에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서울시민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유권자들이 제게 표를 모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어떤 표를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몰아줘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본격적인 경쟁은 5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이건 결국 민주당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것"이라며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억울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억울하다는 민주당이 (특검)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은 결국 다 지나간 일이나 과거는 잊으라고 논평을 했는데 이런 '폐념치 말라' 수법은 전형적인 구태정치 수법 중 하나라며 "또 너도 더럽잖아"라며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수법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과 폐지가 뒹굴면 사람은 더러워지지만 폐지는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민주당 전남 시장·군수 경선 22~23일

경선 지역 12개 시·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는 22~23일 이틀간 실시된다.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을 위한 후보자가 등록을 이날부터 20일까지 한다.

시장과 군수 경선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일반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를 합산해 후보는 결정된다.

경선 지역은 12개 시·군이며 추가로 1개 시군이 늘어날 수 있다.

컷오프를 통과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후보는 순천시장 허석 조훈용, 나주시장 강인규 이용범, 담양군수 최화삼 최형식 박근조, 강

진군수 강진원 이승욱, 함평군수 김성호 김성모 박대욱, 구례군수 김순호 최상현 이창호, 장흥군수 박병동 김성, 해남군수 이길은 김석원 윤재갑, 진도군수 이동진 박인환 주선종, 무안군수 정영덕 홍규표 김산 이동진, 여수시장 김유화 권세도 주철현, 장성군수 김수공 윤시석 등이

다. 하지만, 일부 예비후보는 경선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수에 도전하는 이동권 전 전남도위원은 1차 컷오프했으나 재심이 인용돼 최고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고위에서 결정이 나면 김준성 현 군수와 이 전 의원간 경선이 진행된다.

광역의원 경선은 25~26일, 기초 의원은 26~27일 각각 경선이 실시된다.

권오봉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경선 불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정 후보 들러리 반대"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예비후보가 19일 당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권 예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 선정에 대해 많은 시민은 상포특혜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현 시장을 경선에 포함시키고 사례가 드문 4명



의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위한 경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많은 시민과 지지자의 의견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들러리를 서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전선언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文대통령 "남북 관계 발전 길 여는 이정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해 "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중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

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